

개·교·7·0·주·년·특·집·호

2016 Newsletter 동아는 지금

70년의 값이, 세계와 미래를 품다

108번째 편지
내일을 열다

동아는 지금

2016 Newsletter vol.108

동아대학교



동아대학교
DONG-A UNIVERSITY

송학캠퍼스 | 49315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 37(하단동)
부민캠퍼스 | 49236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225(부민동)
구덕캠퍼스 | 49201 부산광역시 서구 대신공원로 32(동대신동 3가)

※주소 변경 및 구독신청 문의 | 대외협력처 051-200-6042~3



동아대학교
DONG-A UNIVERSITY

www.donga.ac.kr

70년의 깊이,
세계와 미래를 품다



개교 70주년 기념 특별기획

- 04 | 개교 70주년 기념식
- 06 | 한석정 총장 언론 인터뷰
- 10 | 학교 구성원들의 70돌 축하 메시지
- 12 | 개교 70주년 다양한 기념 행사
- 16 | 70년, 도약의 발자취

동아를 이끄는 힘

- 24 | 스포츠/ 동아인의 강한 스포츠 정신, 세계를 넘어서다
- 28 | 학술·연구/ 동아인의 학술·연구 세계를 담다
- 36 | 문화·예술/ 동아문화·예술인 세계를 그리다
- 42 | 지역·글로벌/ 동아인, 지역과 함께 세계로 나아가다

다우 뉴스

- 48 | 주요단 신 / 언론이 본 동아
- 51 | 주요단신 / 동아대학교병원 소식
- 52 | 기부캠페인 소개
- 54 | 발전·장학기금
- 56 | 후원의 집 소개
- 58 | 발전기금 납부방법

동아대학교 소식지 동아는 지금(통권 제108호)

발행일_ 2016년 12월
발행인_ 한석정
발행처_ 동아대학교 대외협력처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 37(하단동)
T.051.200.6042~3 F.051.200.6015
www.donga.ac.kr www.fund.donga.ac.kr

동아대학교 70년의 깊이, 세계와 미래를 품다

학교법인 동아학숙 설립 및 동아대학교 개교 제70주년 기념식 개최
명문사학 동아대의 의미 있는 역사적 행보, 새로운 세기를 향한 포효

- 06 / 한석정 총장 언론 인터뷰
- 10 / 학교 구성원들의 70돌 축하 메시지
- 12 / 개교 70주년 다양한 기념 행사
- 16 / 70년, 도약의 발자취



홍익인간을 건학이념으로 1946년 11월 1일에 설립된 명문 사학 동아대가 개교 70주년을 맞았다. 설립자인故석당 정재환 선생의 참된 교육정신을 바탕으로 시대에 따라 수많은 혁신을 꾀하여 온 동아대는 지금까지 박관용 전 국회의장, 조무제 전 대법관, 양정모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도읍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만수 동아타이어공업(주) 회장,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 등 사회 주요인사를 배출해왔다. 또한 지역 국가 사업과 연구 등의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여 세계 미래의 주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개교 70주년, 동아대를 이끌어갈 한석정 총장 언론 인터뷰



제15대 신입 총장으로 취임(2016. 8. 1.)한 한석정 총장의 경영 전략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천 가능한 지속성을 담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사회과학대학장, 교무처장, 부총장 등 무려 7년 반 동안 주요 보직을 수행하며 익힌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학 구조조정, 75분제 수업 정착, 강의전담 교수제 도입 등 주요 개혁을 이끌어 온 한 총장의 경영 청사진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살펴본다.

동아대의 설립배경과 인재상에서 다른 대학과 차별화된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12월 4일 동아대 개교 70주년 특집 인터뷰 중 **국제신문**

▶ 서울의 몇 개 대학을 제외하면 한국 대학의 1세대는 해방 직후에 세워졌다. 동아대는 해방 이듬해인 1946년 11월에 개교해 한국전쟁과 산업화 등 우리나라의 파란만장한 역사와 그 궤를 같이한다. 석당 정재환 선생은 해방 직후 혼란스러웠던 시대에 고등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동아대는 어려운 시기를 거쳐 현재 재학생 규모가 전국 6위권의 대학으로 성장했다. 전국적으로도 동아대를 빼놓고는 한국 대학의 역사를 이야기할 수 없다. 부산에서 태동해 지역에 자리 잡은 대학이지만 전국적인 인물을 많이 배출했고, 특히 김영삼 정권의 주요 인사 대부분이 동아대 출신이었다. 홍인길 전 청와대 총무수석, 서석재 전 국회의원 등을 대표인물로 꼽을 수 있다.

지역 최고 명문 사학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한 방안은?

7월 31일 취임 인터뷰 중 **부산일보사**

▶ 가장 먼저 '동아문화' 창달로 '동아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되살리는 데 주력하겠다. 동문들의 위대한 발자취, 전국적 명성을 자랑했던 문학·사학·법학·도시계획학·체육 등 분야의 70년 역사와 학문적 자산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홍보해 동아대의 정체성과 위상을 안팎에 널리 알리겠다. 오늘날 대학은 교육에 대한 투자와 노력 없이 살아남을 수 없다. 교수진 강의 역량 강화, 교육환경 개선 등으로 교육의 만족도를 높이겠다. 연구를 명분으로 학생들의 교육과 취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이 졸업 후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대학을 만들고 싶다.

임기 중 가장 역점을 두는 사업 내지는 계획이 있다면?

12월 4일 동아대 개교 70주년 특집 인터뷰 중 **울산매일**

▶ 동아대는 학생 수로 볼 때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많은 대형대학이다. 한강 이남에서 관료조직체, 군대, 대학교 통틀어 가장 큰 조직 중 하나다. 동아대는 1959년 종합대학교로 승격된 후 부속병원과 로스쿨을 갖춘 매머드 대학이 됐다. 그만큼 경영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다. 가장 급선무는 '재정난 타개'다. 비현실적인 등록금 동결과 향후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신입생 감소로 대학이 총체적인 위기를 맞은 만큼 '생존'이 화두가 됐다. 동아대는 많은 대학들이 외면하는 인문학과 자연과학 등 기초분야를 다진 다음, 전통에 걸맞게 지역 지도자들을 육성하기 위한 산학협력 쪽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동아대가 최근 위상이 떨어졌다는 평가를 듣고 있는데?

10월 17일 파워리더 인터뷰 中 donqA.com

▶ 투지와 박력, 따뜻한 인성 등을 동아맨 특유의 유전자로 꼽을 수 있다. 지난 70년 간 이런 특유의 투지로 국회의장을 포함한 다수의 정치인, 법조계 인사, 동남권 재계 지도자들을 배출했다. 또한 양정모, 하형주 등 한국인의 자긍심을 높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양성하기도 했다. 이렇듯 동아맨에게 위기를 극복하는 위대한 유전자가 있는 만큼 70주년을 맞아 힘차게 재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한석정 동아대 신임 총장은 지난 8월 1일 부민캠퍼스 다우홀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정취위 학교법인 동아학숙 이사장, 허남식 전 부산시장, 김두관 국회의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저명인사들이 참석했지만, 어느 행사와는 다르게 특별한 축하 없이 진행돼 한 총장 특유의 소탈함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환경미화원, 경비원 등 학교 구성원들이 주요 인사 대신 영상 축하메시지를 남겨 권위적이고 형식적인 틀에서 벗어난 '소통'하는 총장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는 100건이 넘게 언론보도가 되는 등 두고두고 회자가 돼 학교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

임기 중 구성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앞으로 학내 구성원들을 어떻게 포용할 것인지?

9월 5일(제1129호) 취임 기념 인터뷰 中 동아대학보

▶ 본래 권위를 싫어하고 수직적 관계보다는 수평적 관계를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또한 불필요한 기존의 관습이나 격식을 싫어한다. 이를테면 취임식에서 보셨듯이 여러 고위층 인사들 대신 총학생회장과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경비 아저씨, 외국인 학생들이 축사를 하도록 했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도 연단에 세우지 않았다. 지금 교수 및 교직원, 학생들 모두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희망의 메시지로 구성원들을 보듬는 이른바 '인도식 경영'으로 대학을 이끌어갈 것이다. 돌파력보다는 유연성, 단기 성과보다는 완만한 내실을 기하며, 구성원들의 자율성 확보와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설립자 석당선생이 남기신 동좌문도, 즉 '같이 앉아 도를 묻는다'는 정신으로 다가가 함께 의논하며 어려움을 헤쳐 나갈 것이다. 대학 구성원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자발적으로 능력을 발휘하도록 돕는 조율자의 역할이 총장의 가장 큰 임무라고 생각한다.

21년 간 도장을 다닌 '현역 복서'라는 이색적인 이력을 가지고 있다. 총장직을 수행하는 데 어떠한 강점이 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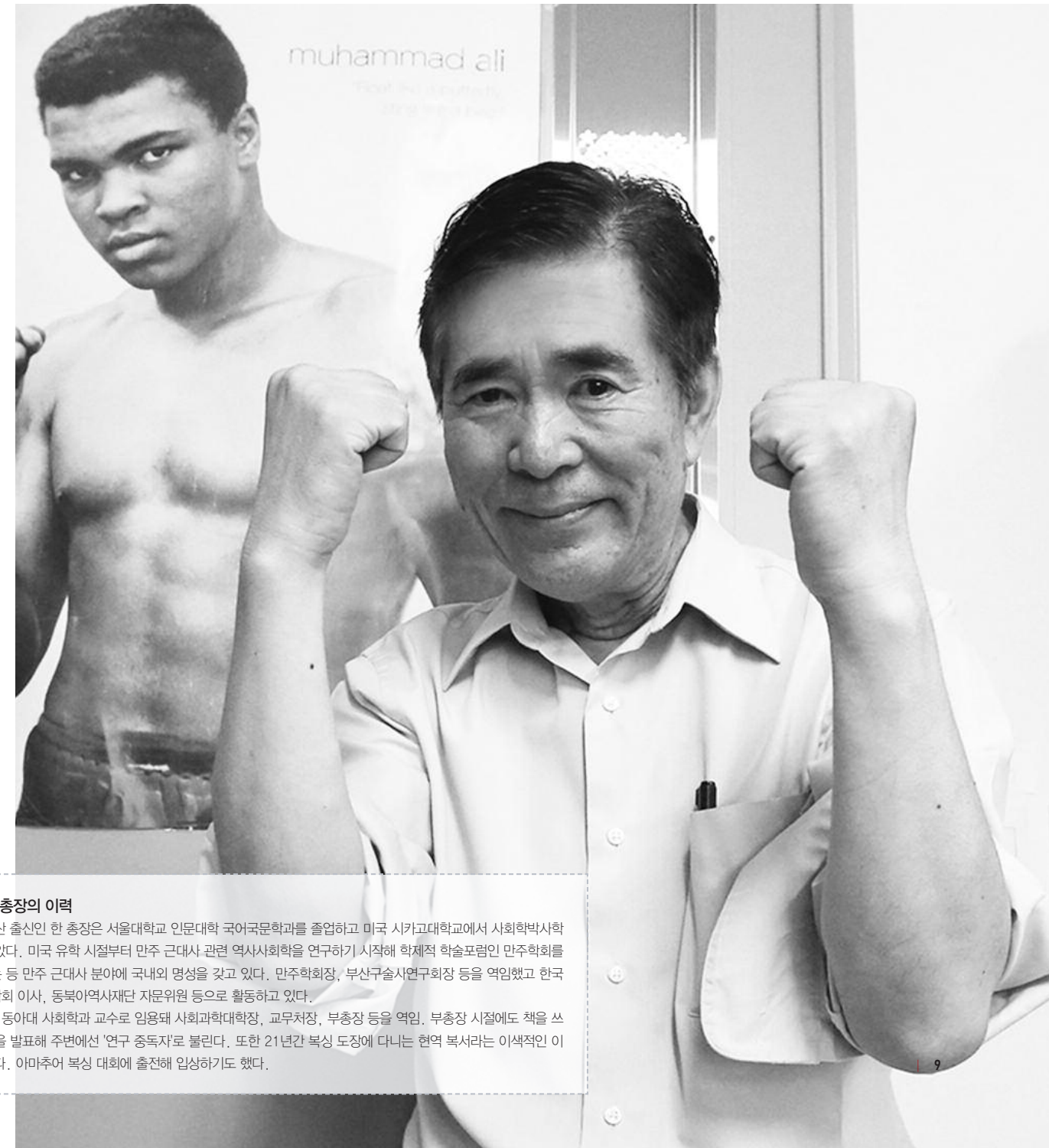
8월 1일 취임 인터뷰 中 K 국제신문

▶ 융합과 승부는 그저 하나의 구호나 이념이 아니라, 삶과 학문의 역정 그 자체이다. 이러한 경험은 융합적 학사 운영을 추진하고 미래의 깨어 있는 시민과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큰 힘이 된다. 또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동아대의 재도약을 이끌 구원투수가 되겠다. 대학의 미래 전략을 제시하는 '미래전략위원회'도 구성해 대학을 둘러싼 사회 변화를 예측하고 선제 대응하겠다.

지역 거점 사립대학을 운영하는 총장으로서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11월 1일 동아대 개교 70주년 특집 인터뷰 中 부산일보사

▶ 서울은 무서운 기세로 지역 인재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 수도권 밖의 지역 대학들이 없어진다면 우리나라는 곧바로 후진국으로 전락할 것이다. 또한 전통 사학 없이 국립대만 존재한다면 곧장 사회주의 국가 신세가 될 것이다. 국립대의 틈바구니에서 수많은 인재를 배출해 온 전통 사학은 이제 생존을 우려할 상황이다. 옥스퍼드, 하버드 등 세계적인 대학들은 유서 깊은 지역 사학들이다. '자유로움'으로 대표되는 사립대의 전통과 역동성이 사라지지 않도록 전통 사학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



한석정 총장의 이력
경남 마산 출신인 한 총장은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시카고대학교에서 사회학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유학 시절부터 민주 근대사 관련 역사사회학을 연구하기 시작해 학제적 학술포럼인 민주학회를 설립하는 등 민주 근대사 분야에 국내외 명성을 갖고 있다. 민주학회장, 부산기술사연구회장 등을 역임했고 한국 사회사학회 이사, 동북아역사재단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1983년 동아대 사회학과 교수로 임용돼 사회과학대학장, 교무처장, 부총장 등을 역임. 부총장 시절에도 책을 쓰고 논문을 발표해 주변에선 '연구 중독자'로 불린다. 또한 21년간 복싱 도장에 다니는 현역 복서라는 이색적인 이력이 있다. 아마추어 복싱 대회에 출전해 입상하기도 했다.

동아대학교의 70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동아人”



올림픽 금메달의 영웅

예술체육대학 학장 | **하형주**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동아인으로서 '정정당당'이라는 신조를 갖고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세계 주어진 학장이라는 직책을 수행하며, 한 개인의 영광을 넘어 동아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미래 동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몸을 바치겠습니다. 가치 있고, 저력 있는 동아대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이 더 진취적이고 열정 가득히 공부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뿌리 깊은 대학, 뿌리 깊은 전통의 동아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개교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0만 동문의 수장

총동문회장 | **제종모**

70주년을 맞이한 우리 동아대학교의 지난 발자취에는 석당 정재환 선생님의 건학이념인 자유, 진리, 정의를 바탕으로 오직 학교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역대 총장님과 교수님, 교직원 그리고 선배 동문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정성스레 엮어가고 있는 동아가족 모두의 힘이 모여 성취한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동아의 비전을 가슴에 아로새기고, 개교 100주년에는 21세기 글로벌 리더의 산실로서 우리 동아대학교가 세계 속의 명문사학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동아대학교의 젊은피

산학협력단 신입직원 | **윤창민**

지금 돌이켜보면 10년 전 입학했을 때 그때가 60주년이었다는 것 같은데, 70주년이 되는 지금까지 학교에 남아 근무하고 있다는 게 정말 뿌듯합니다. 또 앞으로 30년 정도를 더 근무하게 될 텐데, 그때가 되면 100주년이지 않습니까? 제가 퇴직할 무렵 100주년을 맞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학교가 지금보다 몇 배 더 성장하고 발전한 모습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석당학술상의 주인공

전기공학과 교수 | **최호림**

세워진 지 70년이나 된 학교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어떤 대학교의 역사와 견주어 봐도 대단한 역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30년 지나면 100주년일텐데, 그때 학생들은 지금보다 멋있어지면 좋겠고, 저도 개인적으로 더 노력해서 현재 IEEE(세계 최대 전기·전자·통신·컴퓨터분야 전문기단체) 시니어를 넘어 펠로우 멤버가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교수로서 발전된 모습을 갖고 훌륭한 제자들을 많이 길러내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동아대학교의 70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지금까지의 역사보다 더 빛나는 학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깨끗한 동아대학교의 책임자

학내 미화담당 직원 | **윤원수**

정말 축하합니다. 우리 학교가 모든 분야에 빛나는 기록들이 많지요. 우선 올해 총장님도 새로 오셔서 학교 발전에 대한 큰 포부를 말씀해주셨고요. 제가 좀 더 바라는 바가 있다면 우리 학교가 크게 발전하도록, 훌륭한 분들이 많이 오셔서 학교를 빛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미화원들도 학교에서 맡은 역할을 묵묵히, 밝고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하고, 앞으로 나아갈 학교의 모습에 함께 하겠습니다.



30년간 학교를 지켜온

연구지원실 실장 | **정우철**

동아대학교가 역사를 쌓아오면서 계속해서 회자되는 이야기는 '한강 이남 사학에서는 동아대가 최고이다'입니다. 앞으로 동아대학교가 70년을 지나 향후 700년, 7000년을 이어 나갈 수 있는 영원한 동아대학교가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밀거름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의 어떤 영광보다 우리 대학교가 더욱 나아가는 모습을 꼭 지켜보고 싶습니다. 열심히 응원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안전통학

관리과 직원(셔틀버스 운영) | **장시경**

동아대학교에서 근무 한지 16년이나 됐는데, 벌써 70주년이라니요. 제가 동아대학교에 첫 발을 디뎠을 때가 54주년이었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학교 역사가 참 깊다고 생각했는데, 70주년이라니 어마어마한 거 아닌가요? 해방되자마자 설립된 거니깐 정말 역사와 전통이 있는 대학교라는 생각을 새삼하게 됩니다. 동아대학교의 개교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요, 또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기쁩니다. 제 나름으로는 학교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무하고 있다는 게 항상 감사하고 기쁩니다.



최연소 동아인

중국어학과 16학번 | **박습비**

사실 학교 입학할 땐 몰랐는데, 개교 70주년이나 됐다니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니다. 제 나이가 올해 만으로 17살인데, 70주년이면 거의 4배잖아요. 아직 학교생활을 한 지 1년이 채 안됐지만 동아대학교에 다니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지면을 빌려 꼼꼼하게 새로운 내용들을 알려주시는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70주년을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교 70주년의 시작, 지역사회와 함께한 신년음악회

2016년 새해를 맞아, 지난 1월 백스코 오디토리움에서 부산시민과 함께 하는 개교 70주년 기념 신년음악회가 개최되었다. 지역과 함께했던 지난 70년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고자 마련한 음악회에는 부산시민과 동아대 교직원 및 동문, 재학생이 참석해 2,600석 규모의 공연장을 가득 채웠다. 이날 음악회 프로그램은 한 해를 출발하고자 하는 의미로 밝고 경쾌한 음악들로 구성됐으며, 지역사회와 함께 나아갈 동아대학교 모습을 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함께 뛰자, 동아!’ 개교 70주년 기념 마라톤 대회

9월 22일 오전 10시 반 동아대 승학캠퍼스 정문 앞 한석정 동아대 총장을 비롯한 본부관계자, 노조지부장, 총학생회, 재학생 등 학교 구성원 700여 명이 동아대 개교 70주년 기념 티셔츠를 입고 나란히 출발선에 섰다. ‘땅’ 스타트 신호와 함께 동시에 한 발을 내딛었다. 개교 70주년 기념 마라톤 대회인 ‘함께 뛰자, 동아!’의 시작 순간이었다. 올해 처음으로 마라톤 대회를 개최한 동아대는 이번 대회 코스를 승학캠퍼스가 위치한 사하구 하단 일대로 결정했다. 정문에서 출발해 하단오거리를 지나 강변도로를 이용, 하단 2동 주민센터를 거쳐 끝인 지점인 승학캠퍼스운동장에 도착하는 총 7km 코스로 학교구성원들의 큰 호응 속에 끝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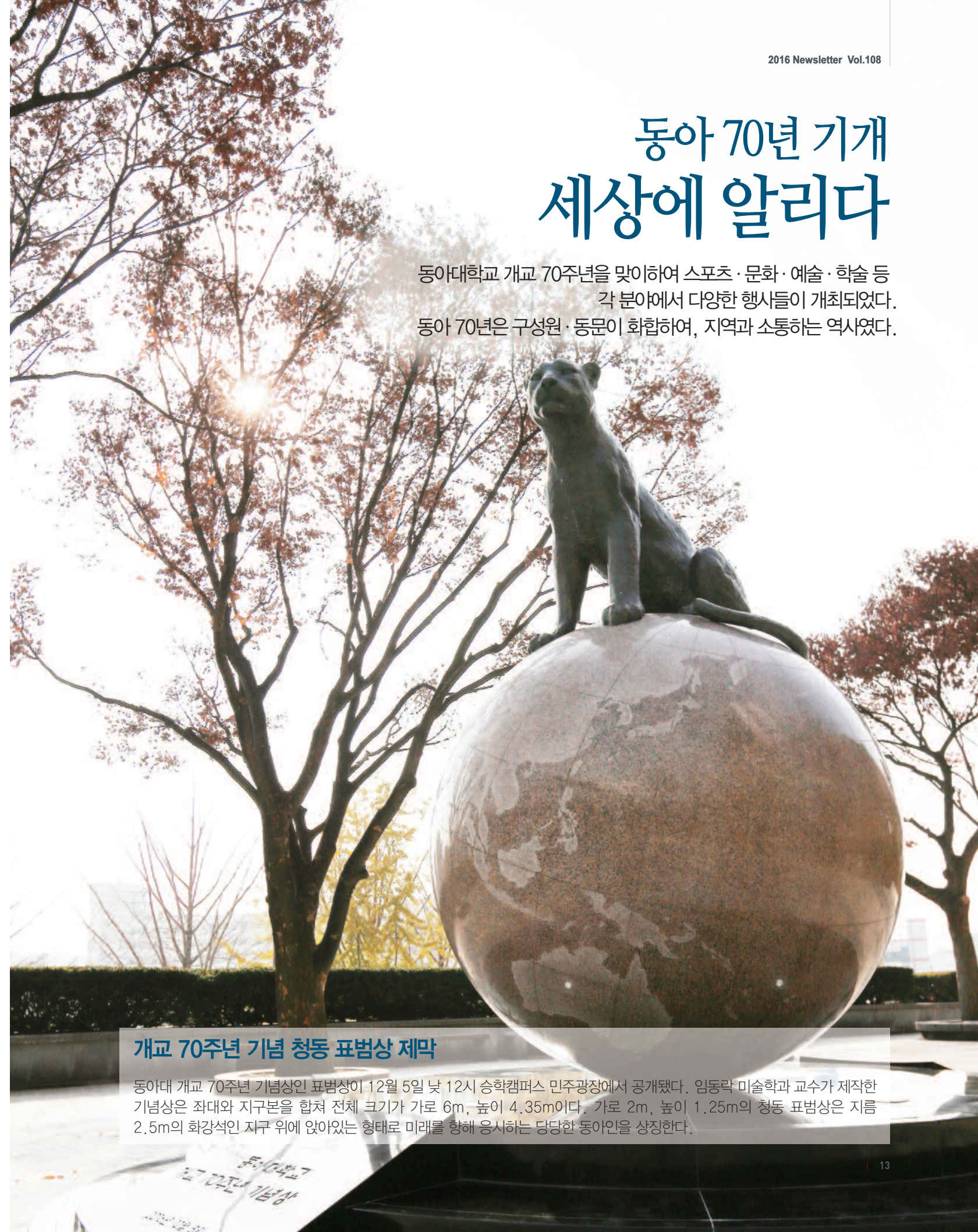
43년 만에 울린 학교 종

11월 25일 개교 70주년을 맞아 ‘역사 찾기’의 일환으로 제8회 졸업생들이 기증한 우리 대학 학교종이 석당박물관 개교 70주년 기념 특별전 개막식에서 43년 만에 울렸다. (2017년 1월 22일까지 특별전 운영)
1955년에 졸업한 제8회 졸업생들은 한국전쟁 후 피폐해진 나라와 대학의 여건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학업을 마쳐 배움에 대한 의지가 남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졸업을 기념해 십시일반으로 학교종을 마련했고 이를 모교에 기부했다.



70년을 돌아보는 학술활동 전시회

개교 70주년을 맞아 ‘역사 찾기’의 일환으로 교내 학술활동의 역사를 조명하는 ‘학술활동 발자취’ 전시가 일주일간(11월 3~8일) 부민캠퍼스 도서관 7층에 마련됐다.
70년의 대학 역사만큼 그동안 이뤄졌던 다양한 학술활동 관련 주요 기록물과 사진 등을 만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
특히 현재 석당학술원의 모태인 동아대 고전연구소가 발행한 ‘역주 고려사’ 11책과 ‘국역 고려사’ 30책이 함께 공개돼 많은 참여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동아 70년 기개 세상에 알리다

동아대학교 개교 70주년을 맞이하여 스포츠·문화·예술·학술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한 행사들이 개최되었다. 동아 70년은 구성원·동문이 화합하여, 지역과 소통하는 역사였다.

개교 70주년 기념 청동 표범상 제막

동아대 개교 70주년 기념상인 표범상이 12월 5일 낮 12시 승학캠퍼스 민주광장에서 공개됐다. 임동락 미술학과 교수가 제작한 기념상은 좌대와 지구본을 합쳐 전체 크기가 가로 6m, 높이 4.35m이다. 가로 2m, 높이 1.25m의 청동 표범상은 지름 2.5m의 화강석인 지구 위에 앉아있는 형태로 미래를 향해 응시하는 당당한 동아인을 상징한다.

동아의 건각들 세계의 지붕을 오르다

동아대학교 산악회, 개교 70주년 기념 북미 최고봉 데날리(6천194m) 등정
정상에서 동아대의 명예와 동아인의 단합 상징하는 휘장 펼쳐져...



산악회, 개교 70주년 기념 북미 최고봉 데날리 등정 성공

동아대학교 산악회가 개교 70주년 기념 북미 최고봉 데날리(6천194m) 등정에 성공했다. 이로써 동아대 산악회는 2016년 데날리를 포함해 2008년 8월 유럽 최고봉 엘브루즈(5천642m), 2010년 5월 아시아 최고봉 에베레스트(8천848m), 2012년 아프리카 최고봉 킬리만자로(5천895m), 2013년 1월 남미 최고봉 아콩카구아(6천964m), 2015년 오세아니아 칼스텐즈(4천884m) 등반에 차례대로 성공함으로써 6대륙 최고봉 등정을 완성했다.

석당박물관 개교 70주년 특별전 시리즈

동아대 석당박물관이 개교 70주년을 기념한 특별전 시리즈('광개토대왕릉비에서 해인사 대종까지-탁본', '동아 70YEARS', '동아와 맺은 인연-기증유물')를 11월 25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마련하고 있다. 사료적 가치가 높은 소장 문화재부터 동아대의 역사와 흔적이 담긴 자료를 공개해 지역 중심 대학의 70년 역사를 일반 시민들과 공유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데 목적이 있다. 광개토대왕릉비의 탁본(1905년 탁출 추정)부터 기증받은 유물, 설립자인 석당 정재한 선생의 '동좌문도' 글귀까지 다양한 문화재를 만나볼 수 있다.

모교 발전기금 조성 위한 '동아미술제' 성료

예술대학 교수진과 재학생, 출신 작가들이 개교 70주년을 맞아 모교 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동아미술제'를 11월 23일부터 30일까지 부민캠퍼스 석당미술관에서 마련했다.

99명의 작가가 서양화·한국화·조각·목공예·도자공예·섬유미술 등 분야를 망라한 작품 100여 점을 다채롭게 선보였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동아대 백성도 특임교수의 <꽃>과 전래식 미술학과 명예교수의 <산들의 합창>은 참가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얻은 수익금은 모두 학교에 기부될 예정이다.

'동아대학신문 제2호' 입수

전국 대학신문 최초로 창간호가 대판(현재 신문 크기) 4면으로 발행됐던 동아대학신문(현 동아대학보)의 '제2호'를 입수해 개교 70주년에 의미를 더했다. '역사 찾기' 일환으로 여러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대와의 교류로 1948년 11월에 발행된 동아대학신문을 확보하게 됐다. 향후에도 의미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새롭게 조명하고 찾아가는 노력을 통해 '역사찾기'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개교 70주년 기념 인문학 행사 잇따라 열려

개교 70주년을 맞은 동아대는 다양한 인문학 행사를 성황리에 마련해오고 있다. 4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캠퍼스 독서문화 조성을 위해 열린 '개교 70주년 기념 독서릴레이'에는 재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 등이 대거 참여했다. 11월 2일에 열린 '인문학콘서트'에는 개교 70주년을 기념해 한석경 총장이 직접 인문학 강의에 나서 시민과 소통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이외에도 '밤샘 책읽기 행사' 등 다양한 인문학 행사가 연이어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70년, 도약의 발자취

광복 이듬해 개교한 동아대학교의 역사는 우리나라 현대사와 맥을 같이한다. 수많은 우여곡절의 세월을 거친 현재 3개의 캠퍼스를 운영, 2만여 명의 학생들이 꿈을 키우는 지역 명문사학이 됐다.



4년제 대학으로 설립 인가를 받고, 범일동 교사로 옮긴 다음 해인 1949년 7월 제 1회 졸업생을 배출했다. (제1회 졸업식 기념사진)



경남도청(현 석당박물관)



부산 서구 동대신동에 있었던 동아대 옛 교사(1953~1963) 모습



제2학생회관



동아대학 설립인가 (주년 기념(1948. 12. 31.))

그 역사의 시작

해방시절 나라를 빼앗긴 뼈아픈 고통에서 벗어나 새 시대 새 국가의 건설을 위해 무엇보다 먼저 배워야 한다는 자각이 국민들 사이에서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는 각지에서 대학을 설립하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졌고, 부산에서도 '민립(사립)대학 설립운동'이 본격화됐다.

당시 법조인이었던 석당 정재환 선생은 이러한 시기에 동아대학 설립 기성회를 조직했다. 그는 모태가 된 남조선대학으로부터 학생을 비롯한 대학 설립의 모든 것을 인수하고 교수진을 개편·보강해 11월 1일 역사적인 개교를 맞이했다. 이후 1947년 3월 20일 교사를 부산 수정동 21번지로 이전, 12월 재단법인 동아학숙의 설립 허가와 동아대학의 설립 인가를 문교부(현 교육부)로부터 받아 2학부(법학부, 문리학부)와 5학과(법률학과, 문학과, 정치경제학과, 수학과, 물리학과)의 문과대학을 갖추게 됐다.

4년제 대학으로서의 면모를 갖춘 동아대는 1948년 8월 첫 신입생을 모집해 9월 1일 개강하는데 성공했다. 그 후 1949년 4월 동구 범일동 매축지 365번지에 교사의 건축이 완공돼 학교를 이전, 같은 해 7월 20일 제1회 졸업식을 거행했다. 비록 그 수는 많지 않았으나 제1회 졸업생 배출은 그야말로 역사의 격랑 속에서 이룩해낸 민족적 경사였다.

1950년 6월, 한국전쟁의 발발은 동아대를 비롯 한국의 교육계에 큰 시련을 안겨줬다. 범일동 매축지 교사를 미군에게 징발당하고, 이사장의 구(舊)사택이었던 초장동에 있는 학숙본부에서 강의를 재개하였으나 전쟁통에 뿔뿔이 흩어진 학생들의 등교율은 저조했다.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1951년 10월 대망의 구덕교사(부산시 서구 동대신동 3가 1번지)로 이전했고, 낡은 천막과 판자로 만든 목조 단층건물 2동을 조성해 민족교육에 대한 사명과 끈을 놓지 않았다.

이후 1954년 34개 교실을 갖춘 3층 규모 본관 건물이 준공돼 본격적인 구덕캠퍼스 시대가 펼쳐졌다. 3,4,5관, 1957년 2월 박물관, 8월 제2학생관, 12월 과학관 등 지속적으로 교육시설이 확충됐고, 이는 동아대 청사진의 밑바탕이 됐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은 마침내 1959년 영남지역 사립대학 중 최초 종합대학교 승격이라는 결실을 가져다줬다.



구덕캠퍼스 과학관(1957. 12. 8. 준공)



구덕캠퍼스 강당(1957. 2. 10. 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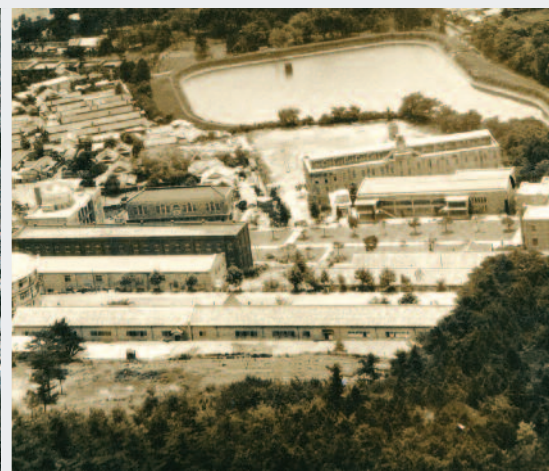
구덕캠퍼스 본관(1954. 11. 5. 준공)

한강 이남 대표사학으로의 자리매김

구덕교사에서 시작된 동아대학교의 본격적인 발전은 시설의 확충뿐만 아니라 야간 대학과정을 개설, 학부를 늘려갔다. 1959년 4개 단과대학(문리과대학, 법학대학, 농과대학, 공과대학)과 대학원, 2부대학과 부속기관(공장, 농장 등)을 갖추어 1959년 2월 26일자로 종합대학교 승격을 인가받았다.

종합대학교로 승격 당시 중요시설로 교지 31,950평, 교사 6,452평, 체육장 5,485평, 공장건물 530평, 공장대지 3,500평, 도서관 70,076평, 농장 519,957평, 연습림 240,390평 등이 있었고, 이후 지속적인 확충과 함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나갔다. 1970년대 들어서면서 구덕캠퍼스 확장에 한계를 느낀 동아대는 1978년부터 현재 승학캠퍼스가 위치한 사하구 하단동 840번지에 본격적인 새로운 캠퍼스 조성을 시작한다. 준공 후 승학캠퍼스에는 공과대학, 이과대학, 농과대학을 이전시키고 이어 대학본부, 문과대학, 경영대학, 학군단을 차례로 설치했다.

1978년 승학캠퍼스 조성



“1970년부터는 동아대의 전성기가 대외적인 성과로 펼쳐진다.”

50대 이상의 국민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동아인으로 꼽히는 양정모 선수는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광복 이후 최초의 금메달을 목에 건다. 이후 LA올림픽에서 하형주 선수가 또 한번 금메달을 획득하며 온 국민을 열광케 하였다. 또한 80년대는 학술과 문화 분야에서도 두드러진 성과를 보인 시기로 전국 인문학 연구소의 효시인 석당전통문화예술연구원(현 석당학술원)을 개원했다. 1984년 10월에는 의과대학에 의예과가 신설되었고 이후 지하 2층, 지상 11층, 749병상 규모의 병원 개설을 보건사회부로부터 승인받아 1990년 3월 동아대학교병원을 준공 및 개원했다.

2008년에는 지방사립대학 최대 규모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인가를 받았으며, 조무제 전 대법관과 유명 법조인들을 배출한 동아대 법대의 명성을 이어가게 됐다. 이러한 발전 속에 정·재계, 문화·예술, 스포츠, 국제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졸업생들이 두각을 드러내며 지금의 동아대를 명문사학 반열에 올려놓았다.

동아대학교의 오늘, 그리고 내일

현재 9개 대학원의 114개 석사과정과 62개의 박사과정, 12개 단과대학의 58개 학과, 2개 독립학부의 3개 전공으로 학사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총 2만 1959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2003년 옛 부산지법과 부산지검 자리를 매입해 조성한 부민캠퍼스와 기존의 승학·구덕캠퍼스까지 3개의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는 동아대는 현재 '지역 사회와 함께 나아가는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각 캠퍼스별로 특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대학본부가 위치한 승학캠퍼스는 인문과학, 공학, 예체능, 자연 및 생명자원과학 등을 배치해 연구 및 교육기능을 강화한 '연구중심 공원형 캠퍼스'로 조성되고 있다. 학제개편에 따라 구덕캠퍼스의 예술대학이 이곳으로 이전하면서 공대 4호관 우측 예술대학과 신축 운동장이 준공됐다. 또한 600명의 인원이 수용 가능한 기숙사도 신축됐으며, 노후 건물들의 리모델링이 차츰 진행될 계획이다.

부민캠퍼스는 국제관 내에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다우홀과 세미나 시설 등 다목적홀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부산의 중심에 위치해 국제교류 중심의 캠퍼스로 손색이 없다. 로스쿨과 국제학, 경영학, 사회학과 등이 있어 학술교류 세미나 개최 등으로 국제교류 기능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임시정부청사를 리모델링해 건물자체가 근대문화유산인 석당박물관 또한 부민캠퍼스의 자랑이다. 학생과 지역 시민들을 위한 다채로운 특별전이 끊임없이 열리고 있어 지역문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대학의 전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구덕캠퍼스는 메디컬 중심의 휴식·치유형 캠퍼스로 변한다. 동아대병원과 대신공원을 끼고 있는 이 캠퍼스 내에는 중앙정원 지하공간 개발을 통한 복합편의시설과 교육시설이, 최첨단 의료교육연구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의료와 실버산업,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게스트 하우스 등을 구축해 지역의 메디컬타운으로 발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경남 창원시의 보배캠퍼스에는 해양생명자원과학 등에 관한 연구시설이 들어선다.

앞으로도 변화와 혁신을 멈추지 않을 동아대. 70년의 역사가 100년, 200년 후에도 이어져 지역을 넘어 세계를 포용하는 명문사학으로 그 기상을 떨치리라 기대된다.

* 참고자료 = 「동아대학교의 첫 요람, 구덕캠퍼스의 역사」, 「동아대학교 70년, 도약의 발자취」

부민캠퍼스 국제관 (2012. 6. 26. 준공)



승학캠퍼스 한림생활관 승학2관 (2016. 2. 24. 준공)



승학캠퍼스 예술체육대학 (2015. 5. 22. 신축 이전)



부산 중구 부평동 위치, 석당 글로벌하우스 (2015. 7. 1. 준공)



승학캠퍼스

연구중심 공원형 캠퍼스

인간중심의 인문학과 첨단과학, 예술과 체육이 하나 되는 연구중심 공원형 캠퍼스입니다. 뛰어난 경관과 조형미로 동아를 대표하는 캠퍼스입니다.

인문과학대학 / 자연과학대학 / 생명자원과학대학 / 공과대학 / 디자인환경대학 / 예술체육대학 / 건강과학대학

부민캠퍼스

도시·문화형 캠퍼스

다목적 강당인 다우홀과 국제교류의 중심기능을 담당하는 국제관, 첨단 도서관 등을 갖춘 부민캠퍼스는 부산지역 교통의 중심에 위치해 향후 글로벌 동아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사회과학대학 / 경영대학 / 글로벌비즈니스대학 / 중국·일본학부 / 석당인재학부 / 법학전문대학원

구덕캠퍼스

메디컬 휴식·치유형 캠퍼스

의과대학이 자리한 구덕캠퍼스는 인간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메디컬 휴식, 치유형 캠퍼스로 동아의 전통을 이어갑니다.

의과대학 / 주요시설-동아대학교병원

동아대학교 70년의 깊이, 세상을 이끄는 힘

학교 구성원들의 한마음, 한걸음이 모여 70년이란 역사가 만들어졌다.
참된 학문을 추구하고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고자 했던 그들의 열정 뒤에는
개인의 욕망보다 사람을 귀히 여기고 세상을 널리 사랑하겠다는 바다 같은 인본주의가 있었다.
그 깊고 넓은 바다 위에 '세계'로 향하는 동아인들이 있다.
스포츠, 학술·연구, 문화·예술, 지역·글로벌 등 각계 분야에서 부지런히 노를 젓는 이들이
바로 동아를 이끄는 힘이자 세상의 희망이다!

- 24 동아인의 강인한 스포츠 정신, 세계를 넘어서다
- 28 동아인의 학술·연구, 세계를 담다
- 36 동아문화·예술인, 세계를 그린다
- 42 동아인, 지역과 함께 세계로 나아가다



동아인의 강인한 스포츠 정신, 세계를 넘어서다

동아인은 강인한 스포츠 정신으로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내왔다.

첫 주자는 레슬링 국가대표 양정모(63) 선수로 1976년 제21회 캐나다 몬트리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특히 양 선수는 광복 이후의 올림픽 첫 금메달로 국민들의 희망이자 모교의 자랑이 됐다.

어두웠던 시절을 '희망'의 등불로 밝혔던 그의 정신을 이어받은 건 유도 국가대표 하형주(54) 선수였다. 현재 우리 대학 예술체육대학장을 맡으면서 후배 양성에 힘쓰고 있는 그는 1984년 8월 10일 미국 LA올림픽 유도 95kg급 결승전에서 브라질의 비에이라를 상대로 통쾌한 안다리후리기 기술을 성공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태권도 국가대표 문대성(40) 선수 또한 2004년 그리스 아테네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학교의 명예를 드높였다.



하형주 선수 1984년 LA올림픽 금메달



양정모 선수 1976년 몬트리올올림픽 금메달



문대성 선수 2004년 아테네올림픽 금메달



올해 2016년에는 태권도 국가대표 김태훈(22, 태권도학과4) 선수가 패배의 아픔을 딛고 딴 값진 동메달이 큰 화제가 됐다. 그는 8월 18일 브라질 리우 카리오카 아레나3에서 열린 2016년 리우올림픽 태권도 남자 58kg급 동메달 결정전에서 멕시코의 카를로스 루벤 나바로 발데스를 꺾었다. 생애 첫 올림픽 경기에서 태국의 상 타원 한프람에게 10대 12로 결승전 티켓을 넘겨준 그는 심기일전으로 패배를 딛고 메달을 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줬다. 김태훈 선수 가족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 100여 명은 김 선수가 경기를 치르는 동안 예술체육대학 태권도실에서 열띤 단체 응원전을 펼쳐 그에게 힘을 실어줬고 감동의 눈물을 함께 흘렸다.

김태훈 선수 2016년 리우올림픽 동메달
(사진: 대한체육회 제공)



김 선수의 포기하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전해 받은 인물은 이정민(26양평군청 소속) 유도 선수였다. 2009년 우리 대학 경찰무도학과에 입학, 2013년에 졸업한 그는 '망막총간분리증'이라는 불치병으로 '리우패럴림픽 장애등급 B2 남자 81kg급 결승전'에 출전했다. 그는 경기 전 왼쪽 무릎 십자인대에 부상을 입어 더욱 어려운 경기를 펼쳐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은메달이라는 값진 성과를 낳았다. 그가 경기하는 모습은 한 편의 감동드라마로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이 됐다.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경기에 임하는 동아 스포츠인의 저력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대학야구연맹회장기 대학야구대회 우승, 김예진 선수 KPGA투어 우승, 제97회 전국 체전 메달 18개 획득 등 각종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 학교 구성원들과 지역 시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묵묵히 구슬땀을 흘리는 동아 스포츠인들의 모습에서 대학의 청사진을 그려본다.

이정민 선수 2016년 리우패럴림픽 은메달
(사진: 대한장애인체육회 제공)

동아인의 학술·연구, 세계를 담다

1946년 11월 1일에 개교한 동아대는 광복 직후임에도 불구하고 석당 정재환 선생의 뜻에 따라 해외의 석학을 초청한 강연과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학술·연구 정진에 힘써왔다. 특히 1975년 석당학술연구장려회의 발족을 계기로 각종 학술연구가 활발했으며, 재직교수들이 지방행정기관 평가단, 각종 자문위원, 연구위원, 문화위원 등 국가 요직을 맡아 이목을 끌었다. 한국토목학회 주최의 국토건설 기술 세미나, 공해대책 국제학술 강연회 등 지역·국가의 문제에 관한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타 대학의 모범이 됐다.

이외에도 재난 대비를 위한 국내 최초 해양방재연구소와 지역 스마트팩토리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학연 연구단지가 승학캠퍼스에 잇따라 개소함으로써 지역과 국가 이슈에 앞장서는 대학으로서의 명성을 입증했으며, 우리말의 소중함을 보존하고 연구하는 학자에게 수여하는 명예로운 상인 주시경 학술상을 2014년 하치근 한국어문학과 명예교수에 이어 올해 우리 대학 최낙복 한국어문학과 명예교수가 수상해 학교의 위상을 높였다.

이러한 역사를 바탕으로 현재 우리 대학의 구성원들도 지역·국가의 발전에 기여하는 학술·연구 성과로 세상의 주목을 받고 있다. 올해에는 운동기능 저하와, 당뇨·염증성 말초신경병증 등 심각한 후천성 질환을 유발하는 말초신경병증을 연구하는 센터가 국내 최초로 우리 대학 의과대학 내에 설치됐다. 국내 약 30만 명이 당뇨와 관련된 질환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원인 규명 및 치료법 개발이 어려워 전문연구소 개소가 필요했던 시점이다.

이외에도 올해 김진수 금융학과 교수가 이끄는 글로벌금융연구소가 개소해 눈길을 끌었으며, 최호림 전기공학과 교수는 美 IEEE 시니어 멤버로 선임됐다. 또한 우리 대학은 2015년 산업계관점 대학평가에서 금속·식품분야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됐으며,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주관대학으로도 주목을 받았다. 그 밖에 전미라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여성 부산과학기술상을 수상해 여과학자로서의 모범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유영현 의과대학 교수는 대한의사협회로부터 '제23회 의당학술상'을 수상해 학교의 명예를 높였다.



국어·인문학에 젊은이들 더 많은 관심을...

2016 주시경학술상 수상
최낙복 동아대 한국어문학과 명예교수



지난 10월 우리 대학 최낙복 한국어문학과 명예교수가 주시경학술상을 수상해 학교의 명예를 높였다. 최 교수는 약 30년 동안 '주시경 문법의 연구' 등 저서 7권과 논문 50여 편을 써 개화기 한국어 문법 연구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았다.

“우리가 사는
2016년은
한글 파괴의
시대입니다.”

지난 9월 27일 요즘의 한글 사용에 대해 묻자 최낙복(68) 동아대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는 이렇게 답했다. 30년 넘게 한글을 연구한 그는 한글날을 앞두고 본사를 직접 찾았다.

개화기 국어문법 연구 권위자 주시경 선생 연구에 힘써 “한글 파괴 너무 많아 아쉬워”

그는 “언어는 시대의 흐름이지만 원칙은 있어야 하는데 외국어 사용, 줄여 쓰기, 소리 나는 대로 쓰기가 횡행하며 원칙이 깨졌다”며 “옛날 한글 학자들이 지금의 국어를 보면 땅을 칠 노릇”이라고 꼬집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구르미 그린 달빛’이라는 드라마 제목은 한글 파괴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고전 국어인양 멋들어진다고 제목을 썼는데 완전히 틀린 문법을 왜 그렇게 쓰는지 모르겠네요.”

최 교수는 개화기 국어 문법 연구의 권위자다. 오랜 연구의 공로를 인정받아 ‘주시경학술상’ 수상자로 지난 9월 19일 선정됐다.

“주시경 선생에 대해 연구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 받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한글 학자들 대표로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글 학자들에게 가장 권위 있는 상인데 그는 겸손하기만 했다.

최 교수의 주된 연구 주제는 1890~1920년의 국어 문법이다. 개화기의 국어 문법은 현대 문법의 기초인 동시에 당시의 역사적 배경과 많은 연관성을 가진다. 우리 시대가 희석시키고 있는 현대의 국어 문법들이 이 시기에 정착됐다.

최 교수는 “이 시기 학자들의 국어 문법 연구는 민족 혼, 민족 계몽 등이 강조됐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독립 운동과 관련이 있어 흥미로웠다”며 “주시경 선생의 조선어문법은 지금의 국어 문법의 기틀”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유길준, 김규식, 최광옥 등 개화기 한글 학자들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해왔지만 그중에서도 주시경에 관한 애착이 깊다. 최 교수는 교직 생활 동안 작성한 논문 51편 중 23편이 주시경에 관한 연구였다.

동아대 국어국문학과(현 한국어문학과) 교수로 1992년부터 22년간 재직하다 2014년 퇴임한 최 교수는 많은 젊은이가 한글, 국어를 포함한 인문학 전반에 대해 더 큰 관심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최 교수는 “국어가 등한시되고 한글이 파괴되는 것이 인문학 투자 부족이라고 생각한다”며 “한글 파괴는 인문학 전반에 대한 투자 부족의 결과물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선진국의 대학 설립 요건 1순위는 철학과이고, 2순위는 모국어 학과”라며 “우리 사회가 더 발전하려면 결국에는 자본의 논리를 떠나 국어학, 한글학 등 인문학 전반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 부산일보 10. 10. 34면 김준용 기자

제조업 스마트혁신 이뤄 세계적 기업 육성

최형림
산학연 연구단지 조성사업 단장

2009년 국토해양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 항만물류 분야 전문학자로 손꼽혔던 우리 대학 최형림 경영정보학과 교수가 이번에는 부산시의 대학 산학연 연구단지 조성사업을 이끄는 수장이 됐다. 그는 이번 사업으로 서부산권 대표사업인 제조업을 지원하는 최적의 ICT융합 메카트로닉스연구단지를 승학캠퍼스에 설치해 지역 동서 균형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
세계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소리없이 뜨겁게
진행 중입니다.
”

“주요 선진국은 일찌감치 투자를 시작해 거대한 흐름을 선도하고 있어요. 최근 우리나라도 그 대열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아대 산학연 연구단지 사업단은 동남권의 산업단지를 지원하고 연계하는 허브로 새로운 흐름을 이끌겠습니다.”

동아대학교 산학연 연구단지(URP-University Research Park) 조성사업단의 최형림(60) 단장이 힘주어 말했다. 그는 지난 5일 동아대가 산학연구관에 개소한 URP 조성사업단의 단장을 맡았다. 이로써 동아대는 부경대에 이어 부산에서 두 번째로 URP 조성에 나섰다. 4차 산업혁명과 URP, 거기에 산업단지까지. 이 낯선 개념들은 무엇일까. 잠깐 풀어내자면 4차 산업혁명은 IoT(사물인터넷)와 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기술혁명을 일컫는 말로 현재 전 세계 산업계 풍경을 바꾸고 있다. URP사업단은 부산시의 지원을 받아 이 혁명에 합류하려는 부산 기업의 변화를 이끈다. 학계 전문가와 연구단이 이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또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업체를 지원하고 육성한다. 동아대 연구단지에는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업체 6곳이 입주했다. 프로젝트를 마치는 2019년 말까지 50여 곳 업체 육성이 목표다.

최 단장은 “동아대는 특히 8000곳에 이르는 부산 제조업체에서 스마트 혁신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다양한 분야 중 동아대 사업단이 주력하는 분야가 제조업이다.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동아대는 인근 신평·장림공단, 사상공단, 녹산산단, 신호공단, 부산과학산단까지 부산의 거대 제조업단지를 아우르는 지리적 장점이 있다.

최 단장은 “제조업과 스마트혁신이 쉽게 와 닿지 않겠지만 활용 범위가 무궁무진하다”며 “사물인터넷을 이용해 공정상황을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기계 상태도 알 수 있다. 완제품에 이를 적용하면 소비자들의 사용 패턴을 빅데이터로 만들 수 있다.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생산 효율성을 고도로 높인다. 미국과 독일 등에는 이미 고루 적용된 이른바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이다”고 말했다.

최 단장은 “향후 사상스마트시티와 연계해 이 일대를 ‘동남권 스마트팩토리 밸리’로 조성하고 싶다. 현재 부산의 제조업 환경은 대부분 영세하고 노후된 인프라로 성장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라며 “스마트팩토리 확산으로 제조업 혁신 3.0을 이뤄낸다는 것이 정부의 방향이다. 낙동강 벨트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스마트 분야 혁신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최 단장은 다른 지역과도 차별화하며 경쟁력을 갖출 자신이 있다고 자부했다. 현재 안산 공업단지를 끼고 있는 경기도와 구미 산업단지 등이 있는 경북도 또한 스마트팩토리 시스템 개발에 매진하는 상황. 최 단장은 “동아대 연구팀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컨테이너에 IoT 기술 접목을 시도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고 상품화에도 성공해 봤다”며 “컨테이너에 기술을 적용해 위험화물 감지, 내부 외부 습도와 온도 측정, 불법적 개폐 여부, 바뀌치기와 밀수 정황 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최 단장은 동남권을 넘어 세계로 향하는 목표도 밝혔다. 그는 “이 방면 교수 25명, 연구원 10명, 석박사생 50명이 참여 중이며 필요할 때 다른 전공의 교수와 협업 시스템도 갖췄다”며 “전문가들이 입주업체와 상시로 협력하고, 또 업체가 자유롭게 연구 결과를 실험하고 검증받을 수 있는 센터도 구축했다. 이번 사업단 조성을 계기로 스마트팩토리 분야에서 세계적 연구단지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최형림 단장은 경남 고성에서 태어나 경남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카이스트에서 경영과학과 석박사 과정을 마쳤다. 1987년부터 동아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 국제신문 10.10. 28면 안세희 기자

해안성 재난 대비 건설·관리 기준 시급

동아대 방재연구소 이정재 소장

1990년 일본 도쿄대에서 건축학과 박사를 취득한 이정재 교수는 1997년부터 동아대 건축공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으며, 지난 10월 5일 최근 국내최초 재난 방재연구소를 우리 대학에 유치·개소해 주목을 받았다.

“
지난달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의 여파로
대다수 부산시민이
공포에 떨었다.
”

거기다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마린시티가 물에 잠기는 현상 등이 겹치면서 해양도시 부산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0월 5일 동아대학교에 국내 최초로 해양도시건설·방재연구소가 문을 열어 눈길을 끈다.

이정재 소장은 “해양도시는 지진, 태풍, 쓰나미 같은 해안성 재난의 위협에 노출돼 있다”며 “특히 부산에는 원전이나 고층건물도 산재해 있고 매립지도 많아 안전성 검토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기초자료나 표준절차가 없다”고 평가했다.

도시계획 단계에서 방재계획을 먼저 세워야 하지만 이 부분도 미흡하다. 오히려 부산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바닷가에 인접해 건물을 세웠다.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마린시티에 해일이 몰려왔을 때도 마린시티 앞에 해일이나 강풍을 막아줄 방풍림도 없고 방벽도 낮아 피해가 컸다.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을 때의 피해도 예측하기 어렵다. 이 소장은 “부산에 내진설계가 된 건물은 25.8%에 불과하다. 시공 단계에서부터 복잡한 내진 시공 방법을 꺼리기도 한다”며 “이에 대한 감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산이 대비해야 할 재난 분야로 지진 위협에 따른 원전 방사능, 해일, 해일과 만조가 섞이는 복합 재난 등을 꼽았다. 바닷가에 인접한 탓에 발생할 수 있는 싱크홀 등의 위험성도 크다.

이 소장은 “부산과 비슷한 일본 오사카에는 ‘어느

지역이 연약지반이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디로 어떻게 대피해야 한다’는 재난지도가 체계적으로 구축돼 있다”며 “이런 대비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불가능하고 지자체가 나서야 하는데 부산의 재난 대비 수준은 아직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부산과 서울에 짓는 건물은 방재 차원에서 고려할 부분이 서로 다르다. 연약지반·바닷물 부식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없다. 연구소에서는 해양도시를 건설할 때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산시에도 재난 상황을 안내하는 시스템이 있지만, 기상청 정보와 CCTV 등을 이용하는 수준에 그친다. 연구소는 해일 등 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느 지역이 어느 정도 침수되고 어느 정도 피해가 갈 수 있는지 어디로 대피하라는 상세한 내용을 안내하는 재난지도 정보를 시에 제공할 계획이다.

연구소는 이처럼 실용적인 기술과 함께 창의적인 원천기술 연구도 병행한다. 원전과 관련해서도 방사능 누출을 점검하는 자체적인 기술을 개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드론이 위험지역에 센서를 뿌려 방사능 수치 등을 관리하는 방법이다.

연구소는 기존 건설기술연구소가 국가중점연구소로 9년간 국비 54억 원을 지원받게 되면서 해양도시 건설과 방재 연구에 특화해 개편하며 만들어졌다. 4개의 워킹 그룹이 구조물 진단 해석, 연안 지반 진단 해석, 재해분석·저감기술,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9년간 3단계에 걸쳐 요소기술 개발, 핵심기술 완성, 통합시스템 구축·실용화 등의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을 대상으로 연구해 이를 다른 나라 해양도시에 수출하겠다는 포부도 가지고 있다.

이 소장은 “해양도시가 복합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건설관리 기준을 세우고 통합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다. 연구진이 상당 부분 압박감을 받고 있지만 기대감과 함께 사명감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 국제신문 10.28. 27면 김영록 기자



동아문화·예술인, 세계를 그리다

어느 시대건 문화예술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선망의 분야였다. 동아대학교 역시 음악학과와 미술학과, 국어국문학과(현 한국어문학과) 등을 통해 사람의 내면을 표현하고 때로는 진실된 목소리로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예술인을 배출해왔다.

미술학과는 1965년 1월 문리과대학 소속으로 신설됐으며, 음악학과는 1966년 12월 문리과대학 소속의 부산 최초대학 음악교육 기관으로 시작했다. 두 학과 모두 지금은 사라진 구덕캠퍼스 내 옛 예술대학에 자리하고 있었다. 이 건물은 본격적인 교사 신축으로 지어진 첫 번째 건물로 구덕캠퍼스의 상징이었다. 현재 예술대학은 승학캠퍼스로 이전해 예술체육대학이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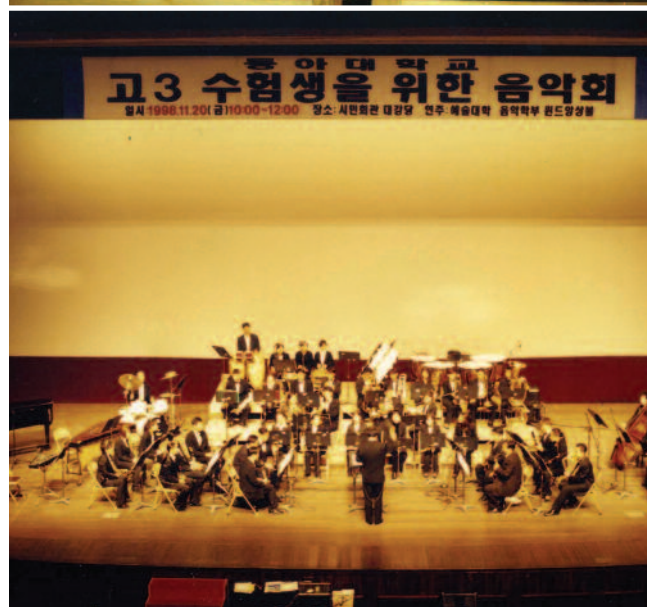
학생들은 이 고딕식 형태의 건물에서 구덕캠퍼스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벗삼아 자유로운 예술을 표현했고, 그들은 탁월한 심미적 감각을 자랑했다. 또한, 설립자인 석당 정재환 선생은 한국전쟁 직후의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얼이 담긴 전통문화유산을 석당박물관으로 하여금 적극 보존하게 함으로써 이들의 예술적 영감에 큰 도움을 줬다.



동아대 미술학과는 명망있는 동문 예술인들의 영향으로 미래의 작가를 희망하는 지역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다. 매년 수천여 명이 실기시험을 치르며, 부민캠퍼스 석당박물관과 석당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감각적인 전시회는 지역 주민들에게 삶의 향기를 불어넣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에는 특히 문화재청의 프로그램인 '피란수도, 부산야행'이 큰 인기를 끌었다. 부산시와 석당박물관이 공동주최한 이 체험형 프로그램 참가를 위해 부민캠퍼스를 찾은 관람객만 해도 6만여 명으로 추정된다.

예술체육대와 석당미술관은 개교 70주년 기념 동아미술제로 동문 예술인들의 단합을 보여줬다. 미술학과 교수진과 재학생, 동문 작가 등 99명의 예술인이 참여한 이번 미술제의 작품 수익금 전액은 학교 발전기금으로 쓰여 특별한 의미를 더했다.

이외에도 박기태 미술학과 교수가 '제15회 오늘의 작가상' 본상을 수상했고, 미술학과 학생들은 '제5회 부산시 대학생 마케팅 기획 공모전'에서 대상, '제1회 대한민국 3D 프린팅 콘텐츠디자인 공모전', '대한민국미술대전', '제29회 전국 공모 성산미술대전', '제42회 부산미술대전' 등 수많은 예술 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둬 미래의 촉망받는 예술인으로 인정받고 있다.



문화산업 흐름 꿰뚫어 전문인력 양성 선도

동아대 문화예술대학원
오구환 원장

전국 대학들이 문화예술학과 존치를 두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가운데, 동아대 오구환 문화예술대학원장은 문화경영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문화예술매니지먼트 교과과정, 생활문화예술과 밀접한 과목인 차와 다도 등을 운영해 예술체육학과 학생들이 자신의 길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학생들이 원하는 바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는 오 원장을 언론매체와의 인터뷰로 살펴보고자 한다.

“문화산업의 역할이 커지면서 관련 분야 전문가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지역에서는 관련 교육을 받을 곳이 마땅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산업 인력 양성에 선도적으로 나서보자는 생각에 4개 과가 소속된 특수대학원으로 문을 열게 됐죠.”

동아대 오구환 문화예술대학원장은 “순수학문으로 예술계열을 찾는 학생이 늘어나는 만큼 정부도 취업률 잣대로만 학과를 평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2011년 문을 연 동아대 문화예술대학원은 여러모로 독특하다. 우선 학과만 봐도 그렇다. 아동미술과와 실용음악과는 낯설지 않다 하더라도 문화 경영 인력을 양성하는 문화예술매니지먼트과와 차(茶)와 다도 등을 가르치는 생활문화예술과는 부산경남에선 보기 드문 학과다. 개원 5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오구환(공예학과 교수) 문화예술대학원장을 만나 향후 계획과 교과 과정 등을 들었다. 오 원장은 2013년 예술대학장과 문화예술대학원장을 겸임한 바 있으며, 지난 7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부산이 ‘문화불모지’라는 말을 오랫동안 들어왔던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엔 과거에 비해 투자가 많이 늘었어요. 비엔날레나 영화제 등 문화 자원의 폭도 넓어지고 있죠. 이 같은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문화 경영에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 현장에 배치되는 것이 필수입니다. 실제로 재학생의 상당수가 문화 관련 기관 종사자인데 이들이 각자 현장에서 제 역할을 해준다면 문화에 관한 인식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특히 그는 앞으로 문화 산업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K-팝만 보더라도 시류를 정확하게 읽고

타깃을 잡아 공략한 덕에 성공했다는 것. 그리고 문화 흐름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느냐는 것은 결국 이론 교육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생활문화예술과는 올해 처음 재학생을 받았습니다. 차를 단순히 마신다는 개념을 뛰어넘어 관련 산업·마케팅 분야와의 접목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부산경남에서는 최초이고 전국에서도 이 같은 수업은 전례를 찾아보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예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작가이자 교육자로서 오 원장은 문화 전반에 관한 이야기도 풀어놓았다.

“최근에는 가정 형편이 이전보다 비교적 넉넉해져 그림 또는 음악 등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학생이 많아졌습니다. 이처럼 순수학문으로서 예술계열을 찾는 학생이 늘어나는 만큼 정부에서도 취업률이라는 잣대로만 학과를 평가해선 안 된다고 봅니다. 또 최근에는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정년 후 문화에 관심을 보이는 노년층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문화 교육 대상자의 스펙트럼이 다양해지는 만큼 앞으로 문화예술 교육의 방향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오 원장은 두 번째 원장을 맡은 만큼 개원 후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들을 두루 살피겠다고 했다. 대표적인 것이 아동미술과의 변신이다. “아동미술학과에는 주로 부울경 지역 미술교육전문기관 종사자나 원장이 많이 수강했어요. 그런데 5년쯤 되니 지원자가 줄어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수강할 만한 인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지요. 우선 2017년도까지는 아동미술학과로 학생을 받고, 이후에는 미술심리나 치유 방면으로의 전향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는 “안주하지 않고 꾸준히 개선점을 찾아내 시대에 맞는 문화 예술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오 원장은 경남 거창 출신으로 동아대 미술학과를 거쳐 동대학 교육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일본 가나자와국립공예미술대학에서 연구교수로 있었으며, 1986년부터 동아대 미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1987년 대한민국 미술대전 우수상, 2013년 봉생문화상을 받았다.

- 국제신문 9.27. 24면 하승이 기자

동아인, 지역과 함께 세계로 나아가다

동아대학교는 현재 3개의 캠퍼스를 특성화하기 위해 진력하고 있다. 하단캠퍼스는 지역 산학연 및 국가연구소와의 교류를 위한 연구중심 공원형 캠퍼스로, 부민캠퍼스는 주민들을 위한 도시·문화형 공간으로, 구덕캠퍼스에는 동아대병원, 의과대 중심 메디컬 휴식 치유형 단지를 조성해 지역·국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대학으로 거듭난다는 취지이다.

개교 초기 때부터 지역과의 소통을 중요시 여겨온 우리 대학은 1973년 학과별 가장행렬, 베토벤 탄생 200주년을 맞이하여 마련된 개교 24주년 기념음악회 등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는 행사를 많이 개최해왔다. 2000년부터는 지역의 주요기관과의 상호협약(MOU)을 지속적으로 체결해왔으며, 최근에는 재학생들이 농어촌활동, 동아재능나눔기부 등 지역 주민들을 위한 봉사활동 등을 꾸준히 펼쳐 사회의 모범이 되고 있다.

설립자인 석당 정재환 선생은 넓은 견문으로 있는 세계대학들과의 교류를 오래 전부터 추진해왔다. 그 덕분에 1978년 8월 17일 독일의 아헨공과대학교와의 최초 자매결연을 시작으로 1982년 독일 뮌헨대학, 1986년 대만 중국문화대학, 1987년 일본 추우쿄오대학, 1988년 영국 리버풀대학 등과 교류를 맺어 활발한 글로벌 소통을 시작했다. 1989년에는 미국 텍사스 의학재단 및 휴스턴 종합의료원과의 자매결연을 맺어 앞서나가는 의료지식을 학생들에게 전하기도 했다.





석당 정재환 선생이 지향한 '글로벌 동아'는 지금 현재에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올해에는 특별히 한석정 총장이 독일 노트라인베스트팔렌주 본에 있는 '라인 프리드리히-빌헬름스본대학교(Rheinische Friedrich-Wilhelms-Universität Bonn)'를 지난 10월 14일(현지시간) 방문해 양교 간 교류를 확대하였다. 한 총장은 호흐(Hoch) 총장을 만나 학술 교류와 대학 운영 정보 교환 등을 약속했다.

대학 간 교류 외에도 우리 대학 내 자체 프로그램인 'win-win'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글로벌 소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 손꼽힌다. '글로벌 학습튜터링', '글로벌 전공 스터디그룹', '동아 세계언어교실'로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국제교류처가 주관해 현재 128명(외국인 유학생 60명, 한국인 재학생 68명)의 학생이 참가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자랑한다.

동아 세계언어교실에 참여하고 있는 아프리카 서부 코트디부아르에서 온 에드가(무역학과 석사과정) 학생은 "한국인 재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갈 기회가 적었는데 영어를 가르치면서 좋은 관계가 많이 형성됐다"며 "유학생들이 재학생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win-win'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외국인 유학생 전용기숙사인 석당글로벌하우스가 한국인 재학생들에게 처음 공개됐으며, 나라 간 문화를 교류하는 인터내셔널 데이(International Day) 행사 또한 성황리에 개최하는 등 세계로 나아가는 동아를 함께 그려가고 있다.

캐나다 밴쿠버~미국 시카고 4천km 자전거 횡단

“성장하는 ‘나’를 발견하는 것이 참 행복”

청년들의 ‘도전’은 그 자체가 값지다.
자신만의 세계로 형성된 ‘알’을 깨부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쏟아 붓기 때문이다.
우리 대학 조완철 학생은 이를 위해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다.
지역을 넘어 세계 길 위에서 많은 이들과 교류하던 그의 모습은 세계로 나아가는 동아인이다.

2014년 4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총 60일 동안 자전거로 미국대륙을 횡단했던 우리 대학 조완철(국제관광학과 3) 학생은 길 위에서 적극적인 청년으로 변한 자신이 무척 대견하고 행복했다. 그러나 한국에 돌아와 다른 친구들과 같이 취업·돈 등에 대해 고민하면서 외부 환경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청년들의 ‘행복’이 진짜 행복인지 궁금해졌다.

조완철(국제관광학과 3) 학생

그는 길 위의 여정이 소극적이고 내성적이었던 청년에게 긍정이란 선물을 줬으니 다시 한 번 떠나보기로 결심했다. 미국 세도나 멘토 교사, 중국 관광청 서울지사 사진작가 팸투어 등 계획했던 모든 일정을 미루고 경비 마련에 나섰다. 횡단 계획서를 학교, 자전거 의류회사인 아텐바이크 등에 제출해 비행기 경비와 의류 등을 지원받았다. 그리고 지난 7월 12일 ‘행복’을 위한 첫 횡단을 시작했다. 총 38일이 소요된 이번 횡단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밴쿠버에서 시작해 알버타 채스파벤프 국립 공원을 거쳐 미국 서부 몬타나 셀비로 건너가 일리노이 시카고에 이르는 약 4,000km의 여행이었다. 자전거 정비를 위한 도구 및 텐트 등을 싣고 다니며 숙박 등을 직접 해결했다.

지난 횡단으로 활달하고 열정적인 청년으로 성장했던 그는 사람들과의 ‘소통’을 원동력 삼아 뜨거운 태양 아래 하루 150km씩 페달을 밟았다. 제일 힘들었던 구간은 사람 한 명 보이지 않았던 미국 몬테나주였다. 40도가 육박하는 날씨 속에서 상점 하나 보이지 않는 외로운 길이 끊임없이 펼쳐졌다. 두려움과 고독감이 물밀듯 밀려왔지만 하루 빨리 통과하고 싶다는 생각에 설 수가 없었다. 그러다 식수가 부족해지고 정신이 아득해지자 지나가던 차를 급히 세워 도움을 요청했다. 쓰러질 듯 한 여행길, 처음 보는 이들의 미소와 친절이 그를 일으켰고, 그때 그 고난은 ‘행복’이란 기억으로 오래오래 그의 곁에 머물렀다. 그는 “한국에서 그토록 찾았던 ‘행복’이 사실은 고난 속에 있었다”며 “벼랑 끝에 서있던 순간 누군가가 나에게 뻗어준 손길, 따뜻한 말 한마디로 나 자신조차 몰랐던 용기가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올라왔다”고 전했다. “한 명이라도 나를 위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길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행복을 발견한 건 영화촬영지로 유명한 미국 노스다코타주 파고(Fargo City)에서였다. 한국인 친구와 인터넷 여행자 커뮤니티인 카우치 서핑(couch surfing)을 통해 일주일 간 숙박하게 된 미국인 부부 집에는 입양된 백인·흑인·동양인 아들, 딸들이 한 데 모여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다. 부부의 넓은 마음만큼 여행자들에게도 넉넉했고, 한식조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그도 솜씨를 발휘해 한국음식을 직접 해주며 타인을 배려하는 행복을 배웠다. 마지막 날, 추억이 담긴 동영상을 가족들에게 선물하고 아쉬운 이별을 했다. 그는 “지금껏 타인을 배려하는 행동에는 항상 내가 무엇인가 해줬다는 자만심이 있었다”며 “하지만 미국인 부부의 배품에는 마치 자신의 삶처럼, 타인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자연스러움과 사랑, 행복이 존재했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로키 산맥에서 곰을 만난 사건, 사막에서의 히치하이킹, 별이 쏟아질 것 같은 캐나다 산맥의 야경 등 위험하면서도 아름다운 순간들이 그의 여행을 운명적으로 이끌었다. 그리고 8월 18일 최종 목적지인 미국 시카고에 무사히 도착했다. 지난 7월 12일에 시작한 38일 만이었다.

그는 횡단의 끝을 회고하며 “홀로 고된 여행을 하다보면 위기 대처능력부터 시작해 사람을 대하는 태도 등 많은 성장을 느낄 수 있다”며 “가장 큰 행복은 수많은 변수와 외부환경 속에서 ‘성장하는 나’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끊임없이 진로를 개척하며 고민하는 청년의 나날들. 돌아온 한국에서 자신만의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는 조완철 학생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뿌리를 이번 여행에서 얻었다며 자신 있는 웃음으로 청년의 행복을 전했다. (글 = 대외협력처 홍보팀)

언론이 본 동아

부산일보사 (2016. 8. 21.)

고 이정형 동아대 교수 가족, 경영정보학과에 장학금 1000만 원 전달



‘모교와 제자를 사랑하였던 고 이정형 교수의 따스한 마음을 이곳에 남깁니다.’ 19일 동아대 부민캠퍼스 종합강의동 BB-0806호 강의실 앞, 이런 내용을 담은 현판이 부착됐다. 1년 동안의 임파선종 투병 끝에 지난 4월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동아대 경영정보학과 이정형 교수가 살아생전 열띤 강의로 제자들과 소통하던 곳이다. 이 교수의 가족들은 그의 모교와 제자에 대한 남다른 사랑 및 교육에 대한 열정을 기리기 위해 1000만 원을 경영정보학과에 기부했고, 학과에서는 이 금액으로 재학생들을 위한 전자칠판과 전자교탁을 설치했다.

이날 현판식(사진)에는 그의 가족과 동료교수, 제자 등 총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교수의 가족들은

“재학생들이 이 교수의 소망처럼 열띤 학업으로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1984년 동아대 응용통계학과로 입학한 이 교수는 서울대에서 통계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그는 1998년 3월부터 동아대 경영정보학과 교수로 약 18년 동안 강단에서 후배 양성에 매진해 모교에 대한 사랑을 실천했다.

아주경제 (2016. 10. 26.)

동아대 야구부 학부모 및 김호민 선수 모교에 발전기금 전달

‘동아대 제4회 총장기 야구대회가 26일 오전 9시 30분 부산 서구 구덕 야구장에서 이색적인 발전기금 전달식 으로 대회의 막을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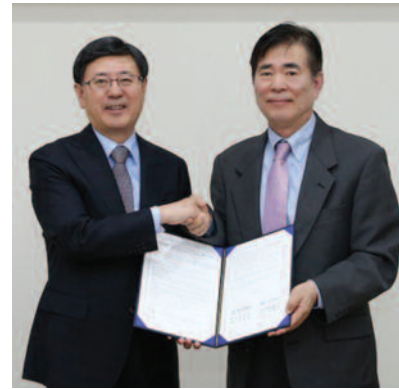
동아대 야구부 학부모들과 NC 다이노스 2017 신인으로 지명된 김호민(체육학과 4) 동아대 야구선수가 발전기금 증서를 한석정 총장에게 전달한 것이다. 이들은 동아대 스포츠 발전을 응원하기 위해 대학 총장실 대신 현장을 방문해 학부모

일동은 6천만 원, 김 선수는 4백만 원을 각각 기부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 시타자로 나선 한석정 총장, 대학 소속 야구부 선수, 야구 동아리 학생 등 대학 구성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대회에는 싸이언스, 코스모스, 덕형, 아마란스, 알파 등 동아대 야구 동아리 5팀이 출전했다. 경기는 27일까지 진행된다.

한 총장에게 발전기금 증서를 전달한 야구부 학부모 일동은 “동아대 야구부 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학교 감독님과 더불어 많은 학교 관계자분들이 성심껏 지도해주고 계신다”며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대학스포츠 미래의 주역들이 날개를 활짝 펼치길 바라는 마음에서 십시일반 기금을 조성했다”고 의의를 밝혔다. 김 선수는 “모교에서 훌륭한 코치님과 동기들을 만나 야구에 집중할 수 있었다”며 “소액이지만 학교 발전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개막식 이후에는 프로야구단 롯데지언츠 소속 신본기, 김대륙, 전병우, 최영환 선수와 기아타이거즈 이은총 선수가 현장을 방문해 학생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산일보사 (2016. 11. 9.)

동아대-한국주택금융공사 MOU 체결



동아대학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국내 주택 및 주택금융시장 연구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약(MOU)을 맺었다. 지난 8일 오전 11시 승학캠퍼스 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한석정 동아대 총장, 김재천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한 총장은 협약식에서 “개교 70주년에 국민 복지 증진의 중추기관인 한국주택공사와 상호협약을 맺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동아대는 보유하고 있는 인력, 연구정보,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공유해 주택시장을 포함한 경제를 거시적인 관점으로 연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 사장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질적·양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며 “보유하고 있는 관련 통계, 경영 노하우를 동아대와 적극적으로 교류해 본 기관의 내적 성장과 더불어 지역 및 국가의 발전을 꾀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 및 주택금융시장에 관한 공동연구 수행 △연구결과 공동 공개 및 홍보 △공동연구 외 기타 양 기관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이 결정됐다. 첫 공동연구 주제는 ‘주택연금의 거시경제적 효과 분석’이 선정됐다.

부산일보사 (2016. 11. 21.)

동아대 발굴 ‘양산 금조총 유물’ 보물 됐다. 양산 북정리 신라 고분 출토(금제조족 등 6건 40점)

20여 년 전 경남 양산 금조총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보물로 지정됐다.

동아대학교는 이 학교 석당박물관이 발굴한 양산 금조총 출토 유물 중 6건 40점이 지난 18일 보물(제1921호)로 지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유물은 금제태환이식(귀걸이)과 금제조족(장식품), 금제 팔찌, 은제 허리띠, 청동제 초두 등이다. 금제태환이식은 금실이나 금 갈래를 붙여 섬세한 무늬를 표현하는 ‘누금세공’ 방식으로 귀갑문(龜甲文)을 새겨 신라 최고의 금속공예품으로 평가된다. 새발 모양의 장식품인 금제조족은 국내 유일의 양식이어서 가치가 높다. 금조총(金鳥塚)의 이름도 이 유물에서 유래했다.



톱니모양의 금제팔찌와 은제 허리띠, 술음식약 등을 꿰는 그릇인 청동제 초두는 경주 외 지역에서 발견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해당 유물들은 1990년 4월부터 5개월 동안 당시 양산 북정리 일대에서 실시된 신라 고분 조사 과정에서 출토됐다. 대부분 여성이 착용한 장신구들로, 경주지역의 귀걸이 금제팔찌 양식과 비교해볼 때 삼국시대인 6세기경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국가귀속문화재로 석당박물관이 임시보관하고 있다. 정은우 석당박물관장은 “금제조족은 죽은 이의 영혼을 지상에서 천상으로 이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더 뜻깊은 유물”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2016. 9. 10.)

KLPGA우승 김예진, 동아대에 발전기금 쾌척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에서 우승한 동아대 김예진(태권도학과3·요진건설 소속) 선수가 모교에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동아대는 김 선수가 아버지 김남철씨와 함께 한석정 총장을 방문해 발전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선수는 “한 때 두려움으로 골프를 그만두고 싶었던 시절이 있었지만 가족·친구들의 사랑과 지지로 극복했다”며 “상금을 모교를 위한 발전기금으로 기탁해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2014년에 동아대 태권도학과에 입학한 김 선수는 2011년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발탁된 바 있다. 2015 정규투어로 데뷔해 같은 해에 열린 초정탄산수 용평리조트오픈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동아대학교병원 소식

(자료제공 = 동아대학교병원 홍보팀)

MT 미니투데이 (2016. 11. 1.)



동아대 김정길 용역직원, 4년째 발전기금 전달

동아대학교는 지난달 31일 김정길(77) 용역직원이 교내 폐지를 수집·판매하고 사재를 털어 조성한 기금 100만 원을 승학캠퍼스 대외협력처장실에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987년부터 동아대 경비반장으로 근무해 98년 정년퇴임했으나 성실함을 인정받아 학교 측의 요청으로 같은 해에 용역직원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2013년부터 매주 동아대의 각 부서를 돌며 폐지를 수거해 판매했으며, 부족한 금액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발전기금을 조성했다. 김 씨는 "학교에서 폐지를 모으는 일이 갈수록 어려워지지만 나를 기억해주는 학생들과 학교 구성원의 격려와 응원으로 힘이 났다. 학교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에 기부했다"고 말했다.

황규홍 대외협력처장은 "학생을 위해 학교에서 가장 먼저 솔선수범하는 멋진 분"이라며 "폐지를 수집하는 노고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모든 부서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K 국제신문 (2016. 10. 7.)

“종주국서 배우는 태권도 재밌어요” 동아대, 유학생 대상 무료강좌 인기

동아대학교는 대학 소속 김태훈 선수가 지난 8월 열린 리우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하자 이를 기념해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태권도 클래스를 무료로 개설하고 지난 4일 첫 강좌를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대학 국제교류처가 주관하고 태권도학과가 강사와 태권도실, 도복 등을 모두 지원해 유학생 사이에 폭발적 인기를 끌었다.



유학생 100여 명이 신청해 승학캠퍼스와 부민캠퍼스로 반을 나눠 매주 화요일 90분 동안 수업을 진행한다. 중국과 베트남, 영국, 독일 등 다양한 국적을 가진 유학생들은 이날 태권도 도복을 받고 태권도 동작 중 발차기를 처음으로 배웠다. 모두 서투르지만 진지한 표정으로 강사의 지도에 따라 동작에 정성을 쏟았다. 승학캠퍼스 수업에 참여한 독일 출신 파트리샤 비치(한국어문학과 4) 씨는 “종주국인 한국에서 태권도를 익힐 수 있어서 기쁘다. 유학생 모두 즐겁게 한국 문화를 자연스럽게 익히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일보사 (2016. 11. 2.)



동아대 교수축구회 ‘제13회 전국교수축구대회’ 맹호 리그서 우승 18개교 350여명 참가… 13년 만의 쾌거

동아대 교수축구회(회장 홍영습)가 지난 30일 ‘제13회 전국교수축구대회’ 맹호 리그에서 최종 우승했다. 전국교수축구연맹이 주최하고 인하대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28일부터 30일까지 인천 송도 LNG축구장에서 열렸다. 수도권 6개 대학, 영남권 7개 대학, 호남권

4개 대학 등 18개교 350여명이 참가해 청호와 맹호 리그로 나눠 열띤 경쟁을 벌였다. 동아대는 결승전에서 부산 동의대를 상대로 1대 0을 기록해 13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다. 동아대 신상용 미술학과 교수가 극적으로 공을 넣었고, 치열한 방어로 점수를 지키는 데 성공했다. 홍영습 교수축구회장은 “장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수들이 적극적으로 경기에 참가해줬다”며 “축구회 운영 및 대회 참여에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은 대학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참가 선수들은 이길원(일본학과), 이건(환경공학과), 오응수(체육학과), 신영균(스포츠지도학과), 우진희(체육학과), 홍영습(의과대학), 손판대(국제중재학과), 하동호(의과대학), 정호균(국제관광학과), 정호원(분자유전공학과), 박현순(신소재공학과), 신상용(미술학과), 최유준(경영학과), 박종환(의과대), 김대경(미디어커뮤니케이션과) 교수이다.

모스크바의대 · 병원과 업무협약(MOU) 체결

진료, 의학 연구 및 교육분야 협력으로 상호국가 보건의료발전 기여



▲ 동아대병원 허재택(가운데) 원장과 모스크바의대 볼코바 올라 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동아대병원(병원장 허재택)이 11월 11일 한국 최초로 모스크바 의대 및 병원과 협약(MOU)을 체결했다. 러시아 최초의 의과대학인 모스크바의대는 1758년에 설립돼 260년의 역사와 2만 여명의 학생을 자랑하는 동유럽 최고의 의과대학이다. 부설 병원인 모스크바병원은 3천 개의 병상을 갖추고 있을 정도로 큰 규모를 자랑한다. 동아대병원과 모스크바의대 및 병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진료 △의학 · 보건 교육 △보건의료 공동 프로젝트 △학술연구 등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허재택원장은 “모스크바의대 및 병원과의 교류협약으로 동아대병원의 입지가 러시아에서 넓어졌다”며 “유서 깊은 모스크바의대의 성과와 동아대병원의 첨단의료기술이 만나 시너지효과로 양 국가의 보건의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6년 부산광역시 지역선도 의료기술 육성지원사업에 선정된 동아대병원은 이번 협약의 이행으로 모스크바의대 볼코바 올라 임상센터소장과 모스크바병원 그리보바 엠마 진료부장 등을 병원으로 초청했다. 동아대학교 교수진들은 심뇌혈관, 로봇수술, 종합검진 등 다양한 분야의 학술 교류를 갖고 최첨단 병원 진료시스템을 소개해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동아대병원은 부산울산 권역심뇌혈관센터, 부산광역시 치매센터 등 10여개의 국가보건의료정책 프로젝트에 선정됐으며, 지역 병원 중 러시아환자 비중이 가장 높은 병원이기도 하다.

러시아 의사연수단, 동아대병원 연수프로그램 참가

양국 의료교류 활성화와 한국 홍보에 기여

동아대병원(병원장 허재택)이 부산광역시와 공동으로 11월 13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러시아 의사연수단을 초청, 의사 연수(정형외과, 안과) 무상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연수단으로 초청된 블라디보스토크 제2병원 셰르마토바 크세니아(정형외과)와 연해주 제2병원 리 데니스(안과) 등은 동아대병원의 수술참관, 의료컨퍼런스 참가 등 각종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선진의료시스템을 체험하고 병원 의사들과의 의료교류에도 참가했다.



▲ 한국을 찾은 러시아 의사단과 허재택(왼쪽 첫번째) 동아대병원 원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 국비 공모사업(2016년 지역선도 의료기술 육성사업)으로 추진됐으며 러시아 의사연수단의 항공료와 체재비는 국비로, 의사연수프로그램은 동아대병원(연수기관)에서 지원했다.

허재택 동아대병원장은 “이번 의사연수는 한국과 러시아간 의료교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 대학 의사 연수자들은 한국을 알리는 홍보대사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고 밝혔다.



여러분의 나눔이 큰 꿈을 이룹니다.

동아대학교가 걸어온 지난 70년,
하나 둘 모아주신 소중한 후원들이
지역 최고의 사립대학을 넘어서
세계 속의 명문대학으로 거듭나는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20만 동문과 함께한 동아의 70년,
이제 20만 동문의 작은 기부로 미래를 향해 도약합니다.

동아사랑 1인 1계좌 참여 운동

“동아를 향한 작은 기부, 큰 변화를 만듭니다.”
동아인의 마음을 모으는 동아사랑 1인 1계좌는 매월 커피 두세 잔 값(1만 원)으로 동아 발전의 조력자가 되실 수 있는
소액 정기기부 운동입니다.
※ 1계좌 당 1만원이 기부되며, 본인 의사에 따라 계좌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기]

네이밍 도네이션

우리 대학에서는 건물, 강의실, 연구실, 실습실 등에 기부자들의 애호를 명명하여 네이밍을 새기고 있습니다.
동아의 역사와 함께 할 뜻깊은 기부를 기다립니다.

| 청춘홀 |

기부자_ 청춘 김만수
동아타이어공업(주) 회장
기부액_ 2억 원
위 치_ 승학캠퍼스 본부건물 1층
면 적_ 336㎡
용 도_ 귀빈행사 및 강의



| 경동홀 |

기부자_ 김재진 경동건설(주) 회장
기부액_ 4억 5천 1백만 원
위 치_ 승학캠퍼스 본부건물 3층
면 적_ 336㎡
용 도_ 귀빈행사 및 강의



| 세정휘트니스센터 |

기부자_ 박순호 세정그룹 회장
기부액_ 1억 원
위 치_ 부민캠퍼스
국제관 건물 지하 1층
면 적_ 229.88㎡
용 도_ 휘트니스 센터



| 팬코글로벌존 |

기부자_ 최영주 (주)팬코 회장
기부액_ 3억 원
위 치_ 부민캠퍼스
국제관 건물 1층
면 적_ 91.50㎡
용 도_ 외국어 교육의 장



장학금 돌려주기

장학금 돌려주는 후배들에게 본인이 받았던 소중한 장학금을 돌려주는 캠페인입니다.
경제적인 형편이 어렵거나, 더 좋은 환경이 필요한 후배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무한히 키울 수 있도록 등록금, 기숙사비, 생활비 등을 지원합니다.



발전기금

※ 기부기간 2016.1.1.~12.7. / 금액:100만 원 이상 (가나다순)

강명구	김은영	박종원	오민홍	정동근	단체	
강지연	김재웅	박주인	오종영	정성욱	(재)동아문화재단	동아골프CEO 원우회
고윤경	김정기	박태호	원동욱	정영기	(재)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동아대학교 마케팅전공 박사회
공현희	김정길	박현석	유길준	정은우	(재)동양문물연구원	동아대학교 명예박사회
권오창	김정만	박홍석	유영현	정정남	(재)부경문물연구원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동문회
권일우	김종현	변동근	윤성국	정진숙	(주)내자인	동아비즈니스포럼 골프서클
권한용	김진훈	서명교	이가연	조남숙	(주)우리은행	메리퀸의원
김경희	김현진	성기인	이나진	조무제	(주)이에스에스	미앤아이한의원
김규준	김현호	성낙창	이대훈	조용수	(주)포항스틸러스	부미초밥
김동진	김형빈	손병찬	이동대	조진한	KB국민카드	사회복지대학원 동문회
김두남	김호민	손정욱	이상	조후용	간호학과 동문회	산업공학과(계약학과)
김득용	노명환	송기훈	이상화	조흥래	경영대학원 AMP 50기	상록광고기획
김명숙	노수진	송영진	이석형	주현옥	경영대학원 AMP 동문회	식품영양학과 동문회
김미애	류명렬	송한식	이선이	지만수	경영대학원 MBA 48기	아름다운 동서여행(주)
김병윤	류은영	송희식	이세영	진병래	경영문제연구소	아이시티안과의원
김병철	민해숙	신홍철	이수걸	채명화	고향한우	외갓집꼬리곰탕
김분숙	박관용	심민보	이은남	채창일	구룡성	우리집으로식당
김상준	박광웅	심부자	이장호	최영규	금융학과 재경동문회	주한유럽상공회의소
김성림	박기현	심상출	이재원	최형림	끌림	진아꽃집
김소현	박대성	안진분	이진우	한석정	나루터식당	초유플라워
김수진	박동렬	안희배	이진화	한정섭	대훈기획	패션디자인학과 4학년 재학생
김수홍	박미경	양기석	임선희	허동윤	동경초밥	한국사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
김영미	박순호	양기훈	임준택	홍종철	동북아문화재연구원	해월정갈비
김영한	박영태	엄기섭	임태분	황동경	동아건축동문회	화이트e치과의원(센텀점)
김예진	박외영	엄찬아	전래식	황정하	동아골프CEO 19기 수료생 일동	재단법인 안양시민프로축구단
김완수	박은경	여정희	전미라	황철호	동아골프CEO 21기 수료생 일동	흥부가
김윤원	박종성	염창홍	전해수			



장학기금

※ 2016학년도 장학금 전달식 (최근 순)

▶ 목화장학회 장학금 전달식	2016. 10. 06.	▶ 서봉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	2016. 08. 25.
▶ 여교수회 장학금 전달식	2016. 09. 27.	▶ 동아공학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	2016. 08. 22.
▶ 고른기회 장학금 전달식	2016. 09. 23.	▶ 윤상기 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	2016. 08. 22.
▶ 세정나눔재단 장학금 전달식	2016. 09. 23.	▶ 동아대 응원단 장학금 전달식	2016. 04. 27.
▶ (주)내자인 장학금 전달식	2016. 09. 08.	▶ 여교수회 장학금 전달식	2016. 04. 26.
▶ 동아장학회 장학금 전달식	2016. 09. 02.	▶ (주)내자인 장학금 전달식	2016. 04. 14.
▶ 사하양지장학회 장학금 전달식	2016. 08. 30.	▶ 봉당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	2016. 03. 28.
▶ 동아대 동문장학회 장학금 전달식	2016. 08. 30.	▶ 청춘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	2016. 03. 16.
▶ 재직동문회 장학금 전달식	2016. 08. 30.		





후원의 집 안내

동아대학교 후원의 집이란?

동아대학교의 발전과 학생 복지 향상을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의 발전기금을 후원해주는 모범 업소를 말합니다.

가입대상

동아대학교를 사랑하고 발전을 후원하는 모든 업소 및 사업체

가입방법

- 후원의 집 가입을 원하시는 업체는 대외협력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주위에 후원의 집을 희망하는 업체를 동아대학교 대외협력처로 추천해주시면 직접 방문해 가입을 도와 드립니다.

가입시 혜택

- 동아대학교 후원의 집 명판 부착
- 후원금에 대하여 세금감면용 기부 영수증 발급
- 동아대학교 총장 명의 감사 난 발송
- 명절마다 소정의 기념품 발송
- 본교에서 발행하는 각종 소식지 및 동아대학보에 지속적으로 소개
- 본교 발전기금 홈페이지 '동아대학교 후원의 집'에 등재
- 교직원, 학생, 동문 및 교내 행사 때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 후원의 집에서 실시하는 각종 이벤트를 본교 홈페이지에 공고 및 전 교직원 메일 발송

가입문의

Tel (051) 200-6012~3

Fax (051) 200-6015

Homepage <http://fund.donga.ac.kr>

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 37
동아대학교 대외협력처

신규 후원의 집 안내

2016년 4~11월

제149호 『(주)에스렌트카』

『(주)KB렌트카(구, KTX렌트카)』는 사하구 일대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자동차 대여점입니다. 동아대 동문 사장님이 직접 운영해 꼼꼼한 정비는 물론 새 차 같은 자동차를 저렴한 가격에 대여해줍니다. 특히, 동아대 교직원과 재학생에게는 5% 할인 혜택이 있으니, 신분증을 꼭 챙겨주세요.

주소 부산 사하구 하단 2동 524-5(하단오거리 1번 출구 다이소 골목)

문의 051-203-0909 / 010-7478-0082

제150호 『탐앤탐스 부민캠퍼스점』

『탐앤탐스 부민캠퍼스점』은 부민캠퍼스에서 가장 가까이 위치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카페입니다. 향긋한 커피와 달콤한 프레즐을 넣고 쾌적한 공간에서 여유롭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동문 선배의 따뜻한 후배 사랑으로 운영되는 탐앤탐스 부민캠퍼스점에서 품격 있는 디저트 및 음료를 만나보십시오.

주소 부산 서구 구덕로 216(부민캠퍼스 박물관 맞은편)

문의 051-231-4406

제152호 『누리마을 감자탕 부민점』

『누리마을 감자탕 부민점』은 맛있는 감자탕, 등뼈찌를 주력으로 높은 접근성과 넓고 쾌적한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가장 큰 서비스이고, 음식의 맛이 그 음식점의 분위기'라는 사장님의 운영 철칙으로 많은 고객이 찾고 있습니다. 최고의 맛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누리마을 감자탕 부민점』에서 든든한 식사를 즐겨보십시오.

주소 부산 서구 부민동 1가 스키야 파크 202호(부민캠퍼스 맞은편)

문의 051-253-1555

제154호 『해사랑』

깔끔한 실내 디자인과 신선한 해산물로 유명한 『해사랑』은 회를 사랑하는 전 연령대의 회식 및 각종 단체 모임장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또한 착한 가격의 활어회와 제철 생선을 이용한 횡감, 푸짐한 밑반찬으로 많은 단골고객들이 즐겨 찾고 있습니다. 넉넉한 인심을 자랑하는 『해사랑』에서 지인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소 부산 사하구 하신번영로 260

문의 051-202-3726

제155호 『페이버릿』

토성동 부산대학교 후문에 위치한 『CAFE FAVOR-EAT』은 조용하고 이쁜한 분위기의 다이닝 카페입니다. 로스팅 연구소로도 유명한 페이버릿은 특히 향긋하고 맛있는 커피로 커피매니아들 사이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세련된 인테리어의 휴식공간 페이버릿에서 커피와 브런치를 만끽하는 여유로운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주소 부산 서구 구덕로 185번길 36(부산대학교병원 후문)

문의 051-255-8009

제156호 『시골통돼지볶음 & 삼겹살』

하단 오거리에 위치한 『시골통돼지볶음 & 삼겹살』은 순수한 국내산 통돼지와 완벽하게 숙성된 김치, 그리고 다년간 연구로 만들어진 흥내 낼 수 없는 양념이 어우러진 돼지고기 최고의 메뉴를 선보이는 맛집입니다. 식사와 회식 장소로 안성맞춤인 『시골통돼지볶음 & 삼겹살』 많은 이용 바랍니다. ※교직원(명함) 및 학생(증 제시) 10% 할인단, 점심(식사)에 한함

주소 부산 사하구 승학로 10번길 9(부산 본병원 뒷 편)

문의 051-291-7070

제157호 『국제주차장』

김해 국제공항 바로 앞에 위치한 국제주차장은 국내·외 여행 시 차량을 할인 가격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곳입니다. 공항 근처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리무진을 통해 공항과 주차장을 왕복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주소 부산 강서구 공항앞길 108

문의 051-325-0012

제158호 『에쁜미소바른이치과 서면점』

『에쁜미소바른이치과 서면점』은 교정전문의로만 이루어진 치아교정 치과입니다. '서면 치아모양 건물'이라는 하나의 랜드마크 자리매김 하고 1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에쁜미소바른이치과는 첨단 장비와 전문 의료진으로 이루어져 있고, 끊임없이 노력해 성장하고 있습니다.

주소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81-1 SS메디칼 8,9,10층 (서면역 9번출구 도보1분)

문의 1577-6275

제159호 『산정』

『산정』은 동아대학교병원 근처 이쁜한 산속의 고깃집입니다. 산정은 식사부터 디저트까지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다른 식당과 차별화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속의 정원에서 분위기 있는 식사를 하시고 싶은 날 산정을 찾아주세요.

주소 부산 서구 보수대로 320번길 55

문의 051-243-9200

제160호 『080안경 하단점』

『080안경 하단점』은 소중한 눈과 시력을 지킬 수 있도록 누진다초점안경, 돋보기, 선글라스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직구보다 저렴한 일회용렌즈와 바슈룸을 특별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주소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553(맥도날드 건너편)

문의 051-291-2378

제161호 『황금오리맛집 & 유황돼지국밥』

『황금오리맛집 & 유황돼지국밥』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압 수치를 정상으로 만들어주는 오리와 유황 먹은 돼지로 만든 다양한 메뉴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 끼의 식사와 함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황금오리맛집 & 유황돼지국밥』 많은 이용 바랍니다.

주소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529

문의 051-901-9200

제162호 『우진고기家』

우진고기가는 2011년부터 5년 간 엄궁동에서 축산 판매장을 운영하며 소비자들에게 많은 신뢰를 받고 있는 '우진축산'에서 직영으로 관리하는 숯불구이 전문점입니다. 최상급 국내산 돼지고기와 한우를 믿고 저렴하게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주소 부산 사상구 엄궁동로 8

문의 051-312-4455



동아대학교가 대한민국 최고 명문사학으로
비상하기 위한 힘찬 날갯짓에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교육환경개선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 할 수 있도록 좋은 면학 분위기 (기숙사 건립/도서관 확충/노후 건물 리노베이션)를 조성해 우수인재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특성화 및 특별프로그램 운영

차별화된 교육·연구자원으로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적극 대응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본교가 강점으로 가진 특정분야에 집중투자하여 지역대학을 선도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합니다.



교원확충 및 학술연구활성화

21C 정보화 지식사회를 선도하며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될 해외석학 초빙, 우수 연구인력 양성, 학술연구활동 지원으로 교육과 연구력이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도록 지원합니다.

장학금 지급

조성된 기금은 장학금으로 사용되며 학생들이 경제력 문제로 인하여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여대상 동문, 교직원, 학부모, 재학생, 기업체, 기관, 단체 등 동이를 사랑하는 어느 누구라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내용 현금, 유가증권뿐만 아니라 부동산, 실험실습기자재 등 여러분의 정성이 담긴 어떠한 물품이라도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현금으로 기부하실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방법 • 무통장 입금 | 계좌로 직접 입금하시고 입금내역을 전화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예금주 : 동아대학교(발전기금)	
부산은행 029-01-027228-1	농협중앙회 944-17-004326
국민은행 118201-04-168318	우체국 600783-01-008731

- 방 문 납 부 | 동아대학교 승학캠퍼스 대외협력처(본부건물 3층 313호)로 내방해 직접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 급 여 공 제 | 교직원에 한하여 매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CMS납부 | CMS(Cash Management Service)는 동아대학교가 금융결제원에 자동이체 출금을 의뢰하는 방법입니다. 직접 은행에 가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송금수수료가 없습니다.

약정신청 전화·방문 약정 전화 혹은 방문해주시면 발전기금 약정과 납부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 대외협력처 TEL : 051)200-6060, 6012~3

온라인 약정 발전기금 홈페이지(http://fund.donga.ac.kr)를 통해 편리하게 약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약정서를 기입하셔서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보내주시면 담당자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팩스나 우편으로 약정 • FAX : 051)200-6015
• 주소 : (우)49315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 37(하단동) 동아대학교 대외협력처(대학본부 3층 313호)



동아대학교 개교 70주년 기념와인

"구매시 일부 금액이 동아대학교를 위한 발전기금으로 기부됩니다."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전경

Bouchard Pere & Fils Bourgogne
Chardonnay
부샤빠레 피스 부르고뉴 샤도네이 / 프랑스
2014년 소믈리에 선정 최고의 화이트 와인
w 35,000

Columbia Crest H3
Cabernet Sauvignon
콜럼비아크레스트 H3카베네 소비뇽 / 미국
2015년 와인 스펙티이터 선정 탑 블루 와인 1위
w 35,000

Querceto Chianti Classico
Riserva
퀘르체토 끼안티 클라시코 리제르바 / 이태리
영국 Decanter지 선정 5★(만점) 와인
w 50,000

주관: 동아대학교 대외협력처
판매처: 와인타임 송파점 Tel.02-401-3766 / 김보형 bhkim@winetime.co.kr *부가세 포함 가격, 포장비와 부대비용은 별도